청산도 슬로걷기축제 4월5일 팡파르 "낮밤 없이 놀아보세"

완도군 "한 달 간 3가지 테마 프로그램 다채"

남도의 봄소식과 함께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완도 청산도에서 다채로운 슬로걷기축제가 펼쳐진다.

25일 완도군에 따르면 '2025 청산도슬로걷기축제'가 4월5일 개막해 5월4일까지 한 달 동안 개최된다.

올해 슬로걷기축제는 '청산도에서 낮밤 없이 놀아보세'라는 주제 아래 ▲걸어보세 ▲낮밤 놀아보세 ▲기록하세 등 3가지 테마로 꾸며진다.

4월5일 개막식에는 '나비야, 청산가자'를 시작으로 농악대와 판소리 공연 등이 진행된다.

'걸어보세' 프로그램은 청산도 슬로길 11코스 중 4개 코스를 걸으면 선물을 증정하는 '청산도에서 걸으리랏다'와 '슬로길 플로깅' 등으로 구성된다.

'낮밤 놀아보세'는 청산도 구들장 논에서 수확한 쌀로 떡을 만들어 나누는 '구들장 논 방앗간' '청산도 유랑단' 공연, '청산도 보이는 라디오' '범바위 기팔찌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기록하세' 프로그램에는 움직이는 포토존과 '선물 줄게, 영수증 다오', 'SNS 인증 이벤트', '청산도 달팽이 엽서' 등이 펼쳐진다.

야간에는 은하수 명소인 청산도에서 인생 사진을 찍는 '별 볼 일 있는 청산도'와 야간 걷기 프로그램인 '청산도 달빛 나이트 워크'가 진행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올해 축제는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풍성한 프로그램과 함께 섬 여객선 반값 운영, 완도치유페이 등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며 "산과 바다, 하늘이 푸른 섬 청산도에서 밤낮없이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청산도는 지난해 한국관광공사 주관 한국 관광을 빛낸 친환경 관광 콘텐츠 분야에서 본상을 수상하며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된 바 있다. 완도/장광식 기자

보성군, 제103회 어린이날 행사 개최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공연 가득한 어린이날 행사 마련

보성군은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5월 5일 오전 10시, 보성차문화공원 (다향대축제 주무대)에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48회 보성다향대축제와 연계한 통합축제로, 단미회(대표 박미영)가 주관하며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 행사와 공연, 놀이마당이 함께 펼쳐진다.

행사장에는 ▲녹차 양초 만들기 ▲달고나 만들기 ▲차밭 가족사진 촬영 등 상설 체험 공간이 마련되며, '즐거움 팡팡' 에어바운스도 운영돼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시간대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추억의 근대 5종 게임(딱지치기, 비석치기, 공기놀이, 팽이 돌리기, 제기차기)을 비롯해 ▲무궁화꽃이 피던 날 ▲둥글게 둥글게 ▲OX 게임 등 다양한 전통놀이와 참여형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다.

특히 무대에서는 어린이날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버블쇼 ▲저글링쇼 ▲댄스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공연도 진행되며, 방문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더할 예정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아이들은 오늘의 주인공이자, 보성의 내일을 이끌어갈 희망"이라며 "가족과 함께 꿈과 웃음이 넘치는 축제의 장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김운기 기자

진도군 보건소,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 검사 첫 시행

외국인 등록 위한 마약 검사 시행 통해 군민과 외국인 불편 해소

진도군 보건소는 3월 21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 검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외국인 등록을 위해 마약 검사확인서가 필요한데, 이전까지 진도군에는 법무부에서 지정한 마약 검사 병의원이 없어 관외 의료기관에서 마약 검사를 받은 후 검사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재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또한 관외 의료기관의 마약 검사비는 1인당 5만 원이지만, 진도군 보건소에서는 1인당 3만 3천 원으로 비용도 저렴해, 관내 농어가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진도군은 지난해에 농업 분야에서 645명, 어업 분야에서 170명, 총 81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했고, 올해는 1,017명의 계절근로자를 농어가에 배정할 계획이며 읍면 사무소를 통해 상시 신청을 받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관련 부서들이 협업하여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계속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진도/오재명 기자

영암군, 'OK 전남 통합돌봄' 시범사업 선정

'영암 올케어' 추진… 75세 이상 어르신 일상 돌본다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9일 전라남도의 통합돌봄 시범사업 'OK 전남 통합돌봄'에 선정돼 도비 2,7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시범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 거주지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주는 내용.

시범사업 선정에 따라 영암군은 총 9,000만원의 예산으로 4~12월 영암형 통합돌봄 '모두에게 힘을 주는 따뜻한 돌봄, 영암 올케어'를 추진한다.

영암군 인구 중 65세 이상이 15,642명, 75세 이상이 7,925명으로 각각 전체에서 30.8%, 15.4%를 차지하고 있고, 2023년 기준 노령화지수도 329.4로 전국 167.1, 전남 237.3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특히, 삼호읍을 제외하면 65세 이상 비율은 42.4%에 달해 돌봄 수요가 많은 실정을 감안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을 실시할 계획이다.

영암군은 시범사업으로 75세 이상 병원·시설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어르신을 돌본다.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의료기관 퇴원환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장기요양 등급판정 대기자 등을 중점 관리한다.

무엇보다 영암군은 전남의 정책방향에 맞춰 '방문의료' '일상생활지원' '특화서비스' 3대 분야로 나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돌봄이 좋아요! 동행서비스' 주말돌봄 '틈새이음 영암' 등 신규 특화서비스도 개발해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올해 전국 군 단위 최초로 통합돌봄추진단을 신설한 영암군은, 체계적 적 돌봄서비스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디자인 운영 지원과제'에 선정된 'YANA 프로젝트(You Are Not Alone)',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해 상승효과도 내기로 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순천시 공익수당, '찾아가는 지급'으로 더 쉽게! 빠르게!

94억 규모 지급 개시 "지역경제 활력 기대"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4월 1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연 60만 원이 지급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된다.

올해 순천시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총 15,718명이며, 예산 규모는 약 94억 원에 달한다.

올해는 기존 지급 방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수령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급 대상자가 많은 5개 동(덕연동, 왕조1동, 삼산동, 남제동, 풍덕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 배부하는 동별 집중 배부 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5개 동은 해당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정 장소에서 공익수당을 수령할 수 있으며, 집중 배부일에 수령하지 못한 경우, 4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NH농협은행 순천시지부에서 상시 수령 가능하다. 읍면지역과 도사동은 마을별로 지정된 수령날짜에 주소지 농협에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대상자가 NH농협은행 순천시지부까지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대상자가 많은 동 주민들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직접 배부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장시간 대기를 방지하고 수령자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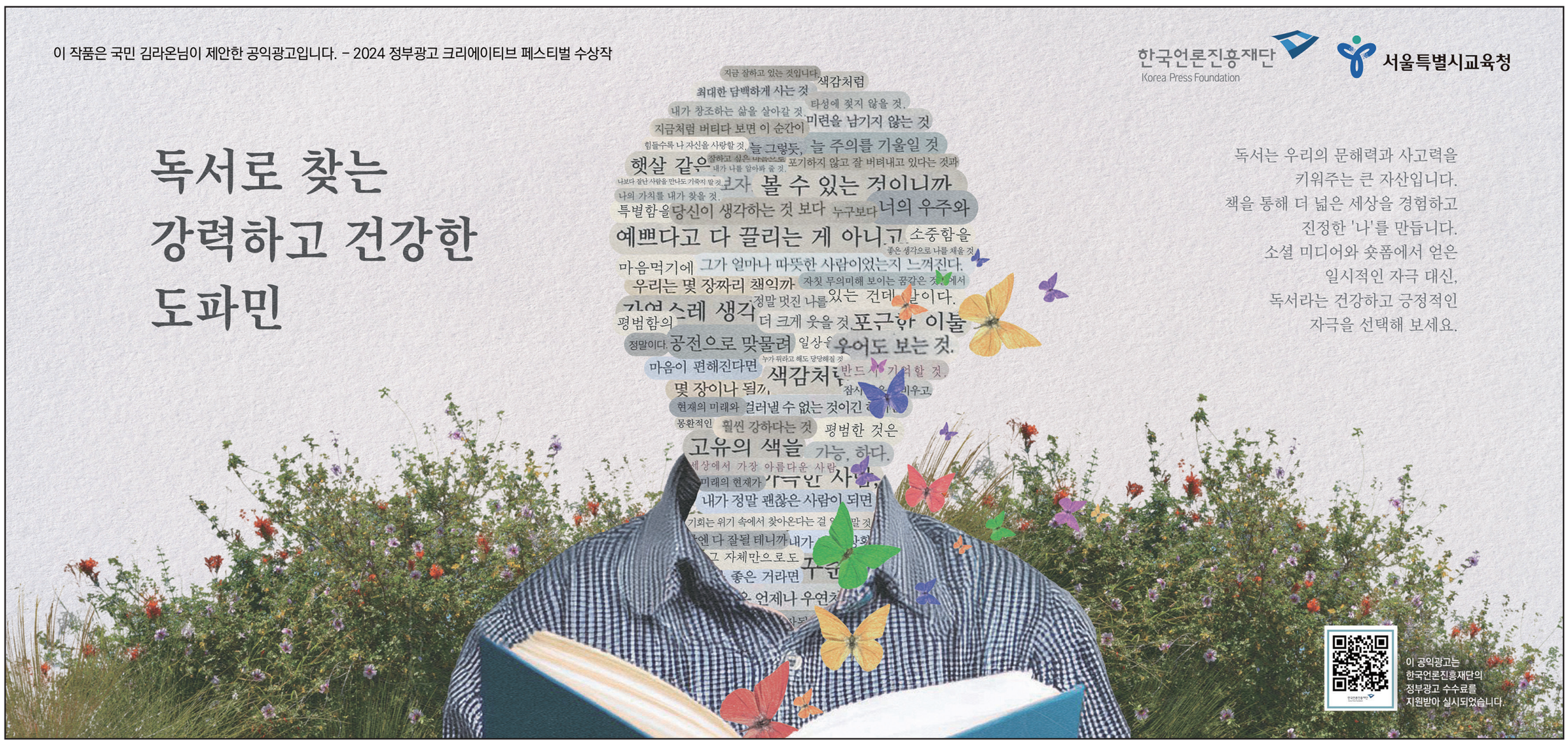
순천/정성인 기자

무안군, 현장 민원상담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4월 2일 무안전통시장서 개최… 소상공인 지원·복지 등 맞춤 상담

전남 무안군(군수)은 오는 4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안전통시장 상인회사무소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 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 주민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국민 권익구제 서비스이다.

무안전통시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상담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조사관을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협업 기관 관계자가 모든 행정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특히 경기침체 속 정책자금 지원, 소상공인 경영·지원, 사회복지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상담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모든 군민은 해당 장소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상담 중 해결할 수 있거나 단순 문의는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하게 된다.

김산 군수는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쉽게 해결하지 못한 고충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제공